

- 2면 노동이 실종된 선거 이제 그만,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
- 3면 실전 노동법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 휴게시간
- 4면 노동안전 칼럼 / 모르면 당하고도 당하는지조차 모릅니다
- 5면 전국 소식 / 조선헌청노동자, 음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도심제조노동자 등
- 6면 이주노동자 / 미얀마 노동자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 7면 독자투고 / 평화가 밥이다
- 8면 우리네 맛집 / 대전 <홍두깨칼국수> · QR코드 활용 꿀팁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2년 5·6월 통합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은 네는 사람들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충북, 세종,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주, 포항, 경북, 경남, 부산,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 4,500명의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25일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들이 휴게시간이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어요. '노동자가 제대로 쉴 권리'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일터를 바꾸는 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인간다운 '쉼'을 보장하라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법이 생겼습니다. 휴게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한 번 살펴볼까요?



▲ 관련 칼럼은 4면에 있습니다.

일터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카톡 채널 추가해 무료 노동상담 받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직장갑질 #해고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불안



※ 홈페이지 주소 : 공단노조.com

[인천] 공단 수다방에 초대합니다

오픈카톡채팅방 부평공단 수다방과 남동공단 수다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평공단노동자누구나 #남동공단노동자누구나 #권리찾기 #무료법률상담 #사업장위법행위제보 #노동조합가입문의 #익명보장



부평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평공단수다방



남동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남동공단수다방

노동이 실종된 선거 이제 그만,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

민주노총 · 금속노조, 6.1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위한 요구 내걸어

6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실제 생활을 놓고 보면 지방선거는 대선·총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지와 환경, 안전, 교육, 산업과 고용 등에 관여하고, 주민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을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경기, 충남,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등이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 기본계획 수립, 노동 관련 조례 제정, 다양한 방식의 노정교섭(협의),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이 예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고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한계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요구와 동떨어지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노동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의 54%가 일하는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도시첨단, 농공산업단지는 전국 1,200여 곳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입주업체 입주 승인, 계약, 관리 감독을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지자체 관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20만 명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였지만 ‘노동’ 정책이 전혀 쟁점이 되지 못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생명과 안전, 노동과 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 의제와 노동자의 요구를 한국 사회에 제기해 각 지자체가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4월 26일 ‘2022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개최 선포와 6.1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시 공공부문 고용안정, 고용의 질 개선 ▲중대재해 예방, 조사, 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의료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고용정책-산업정책-노동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 수립 등을 5대 핵심요구로 걸고,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책임 강화 △돌봄·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노동 중심 산업전환 같은 5대 영역 20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도심제조 노동자들은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요구안을 마련하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4월 26일 6.1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심제조연대가 성수제화거리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후보에 전달할 6.1지방선거 요구안을 알리고 있다

고, 서울시와 해당 업종 밀집지역 자치구 선거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도심형 제조업은 주얼리(귀금속 관련 제품 제조), 봉제, 제화, 인쇄 업종 등이 있습니다. 각 노동조합과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등 중간지원단체, 사회단체 등이 모여 ‘도심제조연대’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공식노동자 노동이력 증빙제 도입 ▲종합지원계획 수립 노동자 참여 보장 ▲도시형 소공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자치구에 △도심제조업종 밀집지역 노동자 지원책 마련 △일시·계절 실업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내는 정책을 보면 나와 무관한 정책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삶터와 일터와 관련한 문제를 모아서 제기하고 요구하는 활동과 동참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노동정책이나 산업단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함께하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 휴게시간

[실전노동법] 간섭 없이 자유 행동하는 시간이 휴게시간 ...
교대제 별도 규정 없어, 실정에 맞게 단체협약 교섭 요구해야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받아야 하나요?

-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4시간당 최소 30분).
- 이 기준은 최소한 기준입니다. 더 긴 휴게시간 보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별 최소 보장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최소 보장 휴게시간	없음	30분 이상	1시간 이상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시간·장소 상 간섭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에서 문제 되는 시간은 일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시간·장소를 통제해 이동을 제한하는 '대기시간'입니다. 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노동자가 실제 일하지 않고,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일 또는 일터에서 이동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만 휴게시간이고, 그 밖의 직장 내 체류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3 휴게시간인지 다툼 대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① 아파트 경비원 초소 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이 사건의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와 아파트 경비원(노동자)은 근로계약상 0시~4시를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했습니다.
 - 경비원들은 야간에 별도 휴게공간 없이 근무 장소에서 조명을 모두 켜고 대기했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 법원은 위 시간에 경비원들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동도 근무장소 내로 제약하고 있어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② 라인 근무자에게 2시간마다 10분씩 주어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한 사례
 - 2017년 기아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 라인 가동 중에 임의로 작업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주어지는 10분의 시간에 생리현상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위 10분의 시간은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에 해당할 뿐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휴게시간을 주는 방식은 정해져 있나요?

- 법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휴게시간 부여 횟수, 1회당 최소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주 5일제 사업장은 대부분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외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 방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기아자동차 사례 처럼 사실상 생리현상 해결 외에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휴게시간을 정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교대제 근무형태가 천차만별인데, 휴게시간 적용 관련 특별 규정이 있나요?

- 교대제는 근무시간대가 일정치 않고, 1일 근로·대기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쉽게 특별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교대제도 앞서 살펴본 최소 보장 휴게시간, 자유로운 이용 보장 원칙, 지휘·감독받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간주 등의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에 관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는
☎ 1811-9509로 연락주세요.

모르면 당하고도 당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노동안전 칼럼] 경남 공장 두 곳 화학물질 중독 29명 발생 … 국소 배기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지난 2월 경남 공장 두 곳의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급성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 곳은 에어컨 부속 자재를 만드는 ㄱ 회사이고, 다른 한 곳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ㄴ 회사입니다. 모두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두 회사는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은 색이 없는 휘발성 액체이고, 장시간 노출되면 눈과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이 손상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ㄱ 회사에서 16명, ㄴ 회사에서 13명의 노동자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 중독으로 치료받았습니다. 29명이나 화학물질 중독으로 병원에 갔다니 큰 사고였습니다. ㄱ 회사는 세척제를 납품하는 회사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납품회사는 겨우 과태료 500만 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노동자의 제보에 따르면 여러 산업용 세척제 제조업체가 관행으로 화학물질의 성분과 성질,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적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이런 재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다 알지 못한 새 건강을 잃고,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만 29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 급성중독 재해를 입은 사실로 다른 공장에도 ‘트리클로로메탄’을 포함한 세척제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수십 군데의 공장을 조사하고, 일부 노동자들에게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동자가 건강을 잃고 난 뒤 어떤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규명해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윤을 좇는 데 혈안인 사업주들의 탓이 큼니다. ㄱ 업체 노동자는 평소 세척액 냄새가 심했는데, 사업주가 방독마스크를 주지 않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했다고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3명 간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디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합니다. 더구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데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대표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공장이 받은 세척제에 표기된 ‘디클로로에틸렌’도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한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중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아무 개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ㄴ 회사는 이미 몇 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국소배기장치 속도가 느려져 고쳐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는데, 회사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노동자들에게 산재로 할지 공상으로 할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화학물질 중독사고도 산재 처리를 선뜻 안 할 정도이니 평소에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유해 요인으로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고,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과 별개로, 노동

자들이 자신의 노동과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사용할 때 주의할 게 무엇인지, 사고 시 응급처치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고도 당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해서 현장의 위험요소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사고 소식을 자세하게 알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사가 사고를 빨리 덮기 위해 언론 접근을 막았을 수 있고,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과장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사건 발생 후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 혼자서 어려운 일이지요.

〈바지락〉 독자님들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나 설비가 필요한지 오늘 꼭 한 번 둘러봅시다. 사업주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갖췄는지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는 회사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됩니다.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금속노조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조선하청노동자, 음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도심제조노동자, 산업단지 휴게시설 실태조사 등

조선하청노동자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청와대 행진



조선업 호황 뉴스 뒷면에 여전히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 산업재해에 내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삽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4월 25일부터 임금인상, 고용보장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로 뭉쳐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킵시다.

인천 남동공단 중대재해 대응 선전전



인천 남동공단의 정보산업에서 끼임사고로 청년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인천 중대재해대응사업단과 인천지부 미조직위원회가 출근 시간에 선전전을 했습니다. 남동공단은 노후한 공단이고 사고, 화재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속해서 공단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서울지역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권리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충북 음성 노동환경 실태조사



〈음성 노동자권리 찾기사업단 꿈틀〉과 음성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원남 산업단지 등 음성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알리고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심제조노동자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선전전



서울 주얼리, 봉제, 인쇄, 제화 노동자들이 2022년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도심제조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한 요구를 노동자, 시민에게 알렸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시행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4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태조사가 어려울 거로 우려했지만, 4,500명이 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실태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휴게시설 실태와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얀마 노동자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 연대의 힘, 시대를 건너 국경을 넘어 회사 담벼락을 뚫다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미얀마,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인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700명을 훌쩍 넘어서고, 구금된 이들은 9,000명에 육박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900명에 이릅니다. 군부는 청년, 여성 ·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폭력을 행사했고, 마을을 모두 태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양곤 서부 공단지역에 4천여 개의 공장이 밀집해있는데 그중에 이랜드나 한세실업과 같은 한국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투쟁,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주도했던 공단 노동자들이 군부 쿠데타 타도 투쟁에 나서자 군부는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흘 동안 200여 명을 사살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에 저항해 지난 1년여간 공장노동자와 평범한 시민, 아동 청소년, 농민, 교사,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생산을 멈추고, 정부 행정 서비스를 멈추고, 은행도 멈추고, 농작물도 제대로 키우고 거두지 못하면서 135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뿔뿔 뿔쳐, 목숨 바쳐 싸워왔건만 막대한 자금과 우월한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쿠데타 군부를 쉽사리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발발 후 한국의 미얀마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앞에서, 도심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울산과 창원, 부산, 대전, 광주, 수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집회와 캠페인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인들과 연대하러 온 노동자 시민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고 있다. 피켓에 적은 'NUG'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뜻하는데, 미얀마 국민이 만든 정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

몇 달 전부터는 1인당 매월 10만 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미얀마 현지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얀마 고향집을 압수당하고 가족들이 고초를 겪은 한 미얀마 노동자는 “나는 이곳에서 목숨이 붙어 있어 다행이다”라며 한국 땅에서 고생 고생해 모은 2천만 원을 민주화 투쟁 기금으로 내놨습니다. 부산역 앞 집회에서 자유발언으로 마이크를 잡은 미얀마 노동자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회해도 되는 걸까요, 미얀마에서는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미얀마 노동자는 “한국도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이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을 안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오늘날 우리는 용감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미얀마 민주주의 집회는 노동절의 의미를 담아 진행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의 나라 한국의 일터 민주주의는 어떠합니까?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로 대신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인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쟁취, 민주주의 혁명 승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모이고, 회의하고, 돈을 내어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받는 무시와 차별에도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왜?”라는 의문을 품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얀마인 노동상담을 하는 미얀마 출신 상담활동가가 전해준 변화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부가 자행한 학살을 독일 언론이 보도하며 독일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광주 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미얀마인들과 연대하고, 지지하는 행동이 미얀마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한국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독자투고] 평화가 밥이다



공장이 멈췄다. 평소 기계소음으로 앞주머니 핸드폰 벨 소리도 듣기 힘들던 곳이다. 고요가 먼지 흩날리던 공간을 채우고 있다. 동료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낯설다.

전쟁은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이곳 시화공단에게까지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과 물류비용이 상승했다. ‘윤스틸’은 전 직원 6명의 작은 공장이다. 철강 파이프를 제조한다. 지난주부터 자재공급이 끊겼다. 회사에 나와도 할 일이 없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퇴근한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자재가 들어온다네요.” 옆 동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일이 없는 불안보다, 노동의 수고가 낫다.

평화가 밥이다.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김성진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2022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한창 기계가 돌아갈 시간에 적막한 현장은 낯설을 넘어 약간 으스스하죠.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쉬는 시간에 장갑과 토시를 놓아둔 줄 알았는데, 보낸 사연을 읽으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나라나 인접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인 듯합니다.

전쟁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 일상을 위협받지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로 만든 식자재 값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은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팍팍한 살림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가 전쟁에 반대해야 할 다른 이유를 발견한 듯합니다.

말씀대로 ‘평화가 밥’입니다. 깊은 생각거리를 준 사진과 글이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한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독자분께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헛헛한 마음 달래주는 대전 <홍두깨칼국수>

[우리네 맛집] 40년 넘은 대전 대흥동 칼국수 골목, 얼큰이 칼국수로 몸도 마음도 채운다

대전에서 나고 자랐다. 20대 후반까지 대흥동에서 살았다. 원뿔형 지붕 때문에 ‘뽕죽집’으로 불리던,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층집이 남아있는 동네였다. 내가 살던 집은 그 ‘뽕죽집’에서 몇 집 건너 낮게 웅크리고 있던 판잣집이었다. 집 앞 골목에 나와 있으면 ‘뽕죽집’ 지붕 밑의 작은 창이 보였다. 꼬맹이 때 그 안에 무언가 무서운 존재가 있을 것 같아서 애써 시선을 돌리곤 했다. 동네 사람들 다 떠나고, 군데군데 철거되기 시작할 때까지 대흥동에서 살았다.

대흥동 사거리에 1970년대부터 상신분식과 공주분식이라는 식당이 있었다. 아주 허름하고 좁았다. 그래도 남녀노소 발길이 멈추지 않았다. 진한 멸치 육수에 얼큰하게 양념한 국물, 넘치도록 내어 주는 면발, 잔뜩 올린 김 가루와 깨, 그리고 한 바구니 내어 주는 썩갠. 어린 입맛에도 그게 그렇게 별미였다. 대개는 ‘얼큰이 칼국수’라고 불렀다. 공주분식 유명세 때문인지 ‘공주칼국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1990년대 초 그 자리에 은행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집은 사

거리에서 안쪽 동네로 옮겨 갔다. 두 식당 옆에 몇 군데 칼국수 집이 더 생겼고, 그렇게 대흥동은 칼국수 동네가 됐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겪으며 삶의 모든 면에서 밑바닥까지 가라앉기를 몇 차례 반복하는 와중에 ‘얼큰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차분해졌다. 금속노조의 조직활동가로서 신탄진에서 활동할 때도 휴일이면 차를 몰고 달려가 한 그릇씩 먹고 오곤 했다. 낡은 추억이 머무는 쇠락한 동네 한편에서 허기를 채웠다. 공복을 달래기는 물론이고 마음 한편의 헛헛함까지 채우는 가장 으뜸의 음식은, 적어도 내게는 ‘얼큰이 칼국수’이다. 국물 들이켜며 땀 한 바가지까지 흘리고 나면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세상의 온갖 국밥은 그다음 차례로 하자.

서울에 올라와 활동한 지 1년 4개월, 사람 만나는 일의 책임감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바뀐다. 이럴 때면 그 칼국수 한 그릇이 그림다. 진하고 얼큰한 국물과 고소한 김 가루와 깨



가 어우러진 고소한 뒷맛, 그리고 잔뜩 넣어 먹어야 제맛인 썩갠의 향. 때마침 지난주 금요일 대전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겨 내려간 김에 <홍두깨칼국수>에서 모처럼 한 그릇 먹었다. 언젠가부터 ‘노잼 도시’로 유명해진 대전이지만, 성심당 말고 갈만한 곳은 많다. 대전을 여행한다면, 꼭 <홍두깨칼국수>에 들러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얼큰이로 양 많이 한 그릇 주세요!”라고 외쳐 보자. 풍성한 여행길을 약속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107번길 15

송민영 /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QR코드 활용 꿀팁

코로나 19 세계 유행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하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내가 QR코드를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1단계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2단계

스마트폰 렌즈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3단계

폰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4단계

알림을 누르면 QR코드 연결 링크가 열립니다.



2022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PDF 파일로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바지락> 다시 보기

- ▲ 2022년 1-2월호 <노동자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등
- ▲ 2022년 3-4월호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연차휴가> 등

지난 <바지락>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온라인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싶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을 시행합니다. ‘영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신문 <이주노동자 바지락>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벵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